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7. 18.(목) 12:00 이후 배포 2024. 7. 18.(목)
(오프라인) 2024. 7. 19.(금) 조간

※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해외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해진다

재외동포청, 민관협력 통해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·편의성 제고

□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.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해졌다.
- 동포청은 18일(목)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(위원장 고진),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), 국민은행, 비바리퍼블리카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·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이번 MOU는 ‘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’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,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.

□ 이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

엠바고

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○ MOU에서 △ 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△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△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하고, 민·관이 서로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.

○ 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“이번 MOU 체결로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, 내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” 며 “기존 동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와 함께 이번 ‘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’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붙임 : 업무협약식 개최 사진 1부(별첨)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	책임자	팀 장	송상철	(02-6399-7170)
		담당자	사무관	국승용	(02-6399-7171)